

‘숨죽인’ 광주 주택시장...올해 ‘찬바람’ 부나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 절반 이하로 폭
‘수억원 급등’ 고가 아파트 거래 거의 없어
정부·은행 규제로 가격 상승세 갈수록 꺾여

올해 들어 광주지역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9·13대책 등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과 금융권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지난해 뜨거웠던 집값 상승세도 빠르게 식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급격한 가격 폭등으로 전국적인 이슈까지 됐던 남구 봉선동 등 일부 단지 아파트 거래는 폭 꺾기면서 가격 하락세까지 감지되고 있다. 올해 지역 주택시장은 수요자들의 관망세

가한 동안 이어지면서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 겹쳐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모두 8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90건)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주택 거래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점에서 통계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 지난해 집 값이 크게 올랐던 남구 봉선동

지역	2019년 1월	2018년 1월
광주	899건	2천90건
남구	118건	300건
봉선동	15건	84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남구와 봉선동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각각 118건과 15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각각 300건과 84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가격이 수억원 폭등했던 일부 봉선동 고가 아파트 거래는 지난달 거의 없었다. 지난해 1월 한달 동안 한국아텔리움 1차와 남양휴튼 1차는 각각 3건씩이 거래됐지

만 지난달 이들 아파트 거래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부터 광주지역 주택 거래는 얼어붙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주택매매거래량은 모두 2천46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2천873건)과 지난해 동기(2천841건)에 비해 각각 14.3%와 13.3% 줄었다. 최근 5년 간 평균 거래량보다 무려 20.7%가 감소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 대출 규제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해석이다. 또 지난해 말부터 주춤하던 광주지역 주택가격은 올해 들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8% 올랐지만, 전달(0.42%)에 비해 상승폭은 크게 줄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갈수록 꺾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0.67%까지 치솟던 광주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0.30%, 12월 0.36%에 이어 올 1월에는 0.14%까지 줄어들고 있다. 올 2월 1주(4일 기준)에도 광주는 전주와 같이 0.03%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른 매수자들의 눈치보기로 올해 지역 주택시장은 지난해 보다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지역 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시행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사장 최형천)은 사업 실패를 겪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신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시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연체 이자, 연 9%)을 전액 감면해 준다. 특히 도움이 절실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고령자, 장기입원자 등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우대해 신속하게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할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약정 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신용관리정보(연체정보)를 즉시 해제해 준다. 최형천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으로 경기침체는 물론 신용상의 제약으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채권관리팀(061-729-0640) 또는 전남신보 홈페이지(www.jnsinbo.or.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光銀서 등록금 내면 장학금 ‘와르르’

내달 말까지 이벤트...총 300만원 지급

광주은행은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1학기 등록금 납부’와 ‘체크카드 경품’ 이벤트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1학기 등록금 납부 이벤트는 광주은행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고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2명에게 장학금과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당첨자 1등 1명에게는 장학금 200만원, 2등 1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행운상 1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 1만원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광주은행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앞으로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차별화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기아자동차는 최근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케이, 에스트라픽)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에스트라픽이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 죽전점 일렉트로 하이퍼 차저 스테이션에서 충전 시연을 하는 모습. 기아자동차제공

기아차,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나섰다

민간 사업자와 파트너십 체결
구매부터 충전까지 ‘원스톱’

기아차가 국내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CPO)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기아자동차는 최근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케이, 에스트라픽)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 등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케이, 에스트라픽)는 법인 및 공용충전사업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기아차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기차 구매부터 충전에 이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 및 법인 고객의 충전기 설치, 운영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달 콜센터를 통한 상시 지원 체계 구축, 전용 멤버십 운영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기아차는 당사 전곡 지점,

대리점, 서비스협력사는 물론 주유소, 마트 등에 충전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고객들이 국내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기아차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파트너사 가입을 통해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공용충전기 이용 시 충전요금을 10% 할인 또는 적립해주는 서비스도 추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에스트라픽이 운영하는 충전소에는 기아차 고객 전용충전기를 배정해 우선예약 및 결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만약 2인 기준 19만 8천 원(세금 포함)이며, 오는 14일 하루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제공된다.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한편, 디오니스 카페&바는 발렌타인 데이가 있는 로맨틱한 2월 한 달간 와인 주문 시 와인에 곁들일 수 있는 미니 플래터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5만 원 이상 와인 주문 시에 해당되며, 테이블 당 1회 제공된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이달 광주 분양 예정 아파트는?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 78세대

이달 전국 일반 분양 물량은 예년 평균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서는 서구 금호동에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이 분양할 예정이다. 11일 직방에 따르면 올 2월 전국에서 15개 단지, 총 1만4천680세대 중 1만2천394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2월 분양 물량은 평균 15개 단지, 7천944세대가 공급됐다. 올 2월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수는 15개로 예년과 비슷하다. 다만, 1천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많아 분양세대수는 4년 평균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분양 예정인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은 전용면적 66-84㎡로 전체 362세대 중 78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박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이달 광주 분양 예정 아파트는?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 78세대

광주 CBS
CBS 인터넷 라디오
개인보유
CBS RADIO

광주 CBS 음악FM

2019. 1. 9 개국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09:00~11:00



서수현의 <매일 주와 함께>
11:00~12:00



한동준의 <FM팝스>
14:00~16:0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6:00~18:00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18:00~20:00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0:00~22:00

Less Talk More Music

최고의 음악채널

광주 CBS 음악FM

FM 98.1 MHz

■ 대구CBS FM 103.1 / 안동 FM 92.3 / 음악FM 97.1 ■ 부산CBS FM 102.9 / 음악FM 102.1 / 서부산 음악FM 105.3 ■ 광주CBS FM 103.1 / 음악FM 98.1 ■ 전북CBS FM 103.7 / 남원 FM 90.7 / 고창 FM 96.3 ■ 강원CBS FM 93.7 / 홍천 FM 93.7 / 원주 FM 94.9 ■ 대전CBS FM 91.7 / 홍성 FM 99.3 ■ 울산CBS FM 100.3 ■ 포항CBS FM 91.5 ■ 경남CBS FM 106.9 / 진주 FM 94.1 ■ 제주CBS FM 93.3 / 서귀포 FM 90.9 / 어음 FM 90.9 ■ 강원영동CBS FM 91.5 ■ 전남CBS FM 102.1 / 순천 FM 89.5 ■ 청주CBS FM 91.5